

집합금지 어기고 출판 벌인 외국인... 처벌 못한 이유 왜?

광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50인 이상 집합 때 처벌

경찰 "클럽 특성상 50인 모인 시점·인원 특정 어려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내려진 집합 금지 제한 명령을 어기고 클럽에서 파티를 벌인 외국인들이 대거 적발됐다. 하지만 경찰은 고심 끝에 이들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왜일까.

21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4시쯤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한 클럽에서 러시아계 고려인 60여명이 클럽에서 파티를 벌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은 '상무지구 A클럽에서 파티가 있다'는 SNS 글을 보고 이날 클럽에 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해 50인 이상의 집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됐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에 대한 처벌을 고심했다.

클럽 입장 전 작성하는 출입명부 상에 있는 60여명이 모두 50인 이상과 밀접했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여러 명이 순차적으로 들어왔다 나갔다는 반복하는 상황에서 50명 이상이 모였을 때 클럽 안에 있는 사람은 처벌하지만 50명 이하로 온 집합을 때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

또한 결정적으로 수많은 이들이 오고 가는 클럽 특성상 언제 50인이 밀집했는지 특정해야 했지만 내부 CCTV가 고장난 상태로 이를 밝히지 못했다.

앞서 50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겨 광주에서 적발된 방문판매 업체와 교회의 경우 클럽과 같이

사람들이 안팎으로 끊임없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인원이 한 곳에 머물러 있어 입건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했다.

경찰은 클럽 내에서 일정 간격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무 A씨(55)와 클럽을 대관하고 파티를 주도한 고려인 B씨(22) 등 4명만 입건했다.

이들은 입장 전 출입명부 작성과 발열체크는 진행했지만 밀접한

공간에서 다수가 접촉하도록 해 감염 예방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 사람이 파티에 참석했다고 가정할 때 추가로 입장한 사람이 50명 이상이면 처벌받지만 49명까지 입장하면 처벌이 안 된다는 것은 법률 검토가 필요했다"며 "또한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가면서 50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광주시와 협의한 끝에 파티 참석자들은 따로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승호 기자



생수로 밥 하는 식당 21일 인천 서구의 한 식당 관계자가 생수를 이용해 밥을 짓고 있다. 환경부는 인천 '수돗물 유충' 민원의 원인으로 지목된 활성탄지가 설치된 전국 정수장 49개소 가운데 7개 정수장에서 유충이 발견됐다고 21일 밝혔다.

"가을철 대유행 불안 말아달라...방역수칙만 지키면 돼"

권준욱 "최근 국내 나아진 상황...방역 노력 결과"

정부가 가을철 '코로나19' 대유행이 예고된다는 일부 시각에 대해 과도한 걱정은 말아달라며 방역수칙이 잘 지켜진다면 대유행을 막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최근 국내 유행상황이 지속되면서 불안감이 커지자 경계는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방역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1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2차유행이 온다, 겨울이면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한다 등 가정에 기반한 얘기에 대해 걱정하

지 말아달라"며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통해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악몽같은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초부터 수도권 확산세가 이어지자 고위험시설 지정, 수도권 지역 강화된 방역관리체계 적용 등을 시행해왔다. 아울러 광주와 대전 등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하기도 했다.

이에 최근들어 지방 확산세는 완연하게 꺾였고, 수도권 유행도

더 이상 커지고 있진 않은 상황이다.

권 부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지난 5월초 연휴 이후 수도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세를 진정 시키는데 두 달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있다"며 "현재 그나마 나아진 상황이 그 당시 노력의 결과"라고 진단했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그 간 노력이 앞으로 물거품이 되지 않기 위해 하루하루가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며 "개인의 방역과 사회방역 등 전체 생활방역이 지금처럼 조화를 이루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봉우 기자

아쿠아플라넷 여수 '벨루가' 폐사...동물단체 "방류하라"

햇핑크돌핀스 "좁은 수조에 갇혀 예견된 죽음"



아쿠아플라넷 벨루가. 사진 햇핑크돌핀스 제공

전남 여수 한화아쿠아플라넷에 살던 벨루가(흰고래)가 폐사하면서 동물단체가 남은 벨루가들의 방류를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한화아쿠아플라넷에 따르면 벨루가 3마리 중 1마리가 전날

폐사에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에 햇핑크돌핀스는 성명을 내고 "아쿠아플라넷 여수에는 벨루가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수조 내 없었다"며 "예견된 죽음"이라고 비판했다.

단체에 따르면 아쿠아플라넷 여수의 벨루가들은 이미 면역력 저하로 인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다.

또 수조 깊이가 7미터밖에 되지 않아 몸길이 1미터에 달하는 벨루가에게는 너무 얇았다.

이 뿐 아니라 좁은 수조에서 벨루가끼리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행동풍부화나 환경풍부화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 단

체의 지적이다.

아쿠아플라넷 여수의 벨루가가 폐사하면서 국내 벨루가는 현재 7마리가 남아 있다.

단체는 "인간처럼 높은 지능을 가진 고래류를 언제까지 좁은 수조에 가둬놓고 오락거리로 이용해야 하나"라며 "고래들에게는 아행에서의 포획 등 수족관 사용을 위한 모든 과정 자체가 동물학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내에 남아 있는 벨루가 7마리를 러시아로 돌려보낼 것을 포함해 모든 고래류의 전시·공연·체험 금지, 해양동물 구조 및 치료기관 설립, 고래류를 비롯한 해양동물 보호를 위해 정부가 앞장 설 것을 촉구했다.

오유나 기자

광주시체육회 선수 폭력 전수조사 "가혹행위 등 없어"

광주시체육회는 스포츠계 비리 근절을 위해 선수 폭력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소속 선수들을 대상으로 문자·공문·유선통화 등을 통해 선수(성)폭력, 금품요구와 갈취 등 각종 비정상 관행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중목단체를 비롯해 수영 등 22개 종목 92명의 일반부 선수들을 대상으로 1차 스포츠 비리 신고, 2차(성)폭력 피해 처리절차 매뉴얼, 3차 중목단체 임원·지도자·선수 간 폭력 등 가혹행위 신고를 안내하며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체육회는 전수조사 결과 선수폭력과 폭행 등 부적절한 사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창준 광주시 체육회장은 "최근 스포츠계에 불거진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체육인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시체육회에서는 스포츠 인권 교육, 지도자 교육 등을 통해 선수(성)폭력 등 스포츠계 비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이슬 기자

송파 60번 접촉 전남 64명 중 63명 '음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울 송파구 60번과 관련된 '광주 일가족 확진자'와 접촉한 전남도내 64명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 보성에서 1명이 '양성'으로 나온 것 이외에 나머지 63명은 '음성'인 것으로 판명됐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 177번 확진자와 접촉한 22명 중 보성 거주 30대 여성(전남 35번째 확진자)이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나

머지 21명은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광주 180번 접촉자인 승주 골프장 공사장 관리자 등 25명과 광주 183번 접촉자인 11명(나주 2명, 구례 1명, 장성 1명), 광주 185번 접촉자 6명(장성)도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다. '코로나 19' 전남 35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 3명(조모, 부모)과 대중교통 접촉자 9명도 진단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다.

최이슬 기자

N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062)943-0135 ~ 6
FAX: 062)943-0134